



## 열두번째 이야기

### 교회의 본질

질문하는 사람이 칼자루를 쥐는 게 인터뷰입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온누리교회 이천만광장에서 처음 인사를 나눴지만 샤이닝 글로리로 금새 장소를 옮겨야 했습니다. 그는 아무리 더운 여름에도 바람 맞기를 싫어했습니다. 음료도 남들이 묻는 대로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무작정 고덕이는 스타일도 아니었습니다. 페리에 탄산수를, 그것도 얼음없이 주문하셨습니다. (^.^) 세상 어느 것에 대해서든 본인의 선호가 있고, 자신만의 의견(view)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건 어찌하여 그리된거냐” 여쭙면, “이건 한 시간 짜린데..”라고 운을 떼십니다. ‘한 시간을 내어주면 얘기하고, 짧게 듣고 말거면 그만두라’는 ‘조건부 제안’처럼 슬쩍 조여옵니다. (결국 저는 하루 종일을 드리겠다고 행복하고 말았구요, 후훗)



몸에 베어있는 승부사 기질과 탁월한 협상 마인드가 게임의 룰을 바꿔버렸습니다. 저는 그의 답변을 인기 드라마 다음 회를 기다리듯 양망했고, 그는 자신의 페이스 대로 자신의 서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거침 없었습니다. 졌다는 얘기도 그가 얘기하면 흡사 이긴 것 처럼 당당하게 느껴졌습니다. 한 눈에도 스마트한 그의 눈빛은 백발을 엮은 순진한 미소와 합해져서, 더할 나위 없는 영적 매력을 뽐내었습니다.

‘BEE 오는 수요일’ 열두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그는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정대서 장로님이십니다. ^^

비록 떠난 지 10년이 넘었지만, 그래도 기자 출신인 저를 단번에 기선제압한 카리스마의 근원에 대한 궁금증은, 그의 학창시절 얘기를 듣는 순간, 바로 수궁이 갔습니다. 경기고-서울상대 출신인 그는 1학년때인 1971년도 부터 소위 데모대장이었습니다. 농활은 물론 당시에는 탄광으로 직접 찾아가 광산을 캐는 봉사활동도 앞장섰습니다. 그러다 대학 3학년 때인 1973년, 경기도 일영으로 떠난 MT에서 학우들의 잘못된 헛점을 발견하곤, 곧 바로 그 자리를 내놓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이 기획하는 운동이 옳지 않은 것에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연히 잘못된 것에 꼭두각시 노릇을 할 수 없는 그였습니다. **아무리 다수가 그에 반대한다 해도, 아니 그러면 그럴 수록 더욱, 그는 옳은 그것을 위해 나홀로 떨쳐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었습니다.** 대학 은 사남께서도 그런 그를 알아보시고, 이렇게 진로 조언을 해주셨답니다. “자네 성질 머리로는 공무원 못하네. 공무원 사회라는 게 거대한 부조리 덩어리인데, 그 꼴 보고 그냥 있을 사람도 아니고, 그 꼴을 못참고 날뛰다간 금방 칼맞네.” 후훗. 그는 첫 직장인 대한항공에서 증권사로 이직할 때와 같은 **생의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면, 주변이 나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고 그만의 선택을 이어갔습니다. 누가 뭐라해도 그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그런 장로님께서 제대로 하나님께 나아오게 된 것은 역시 믿음의 배우자를 통해서였습니다. 아내 이해정 권사님 입장에서 장로님은 오랜 기도 끝의 응답이었습니다. 딸 다섯 중 맏딸이었던 권사님의 친정 부모님께서선 동생들도 시집을 잘보내야 한다면서, 고르고 골라 선을 보여주셨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때 “인생이 이렇게 끝난다는 건 말이 안된다”며 제발로 교회를 찾아갔던 권사님께서선 새벽기도를 이어간 끝에 장로님을 만나신거였구요. “(아 내가) 합당한 남자를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했다는데, 저는 중학교 이후로 교회도 안다니지, 술-담배 하지, 맨날 회사 사람들하고만 놀러 다니지 하니까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었던 거죠.” 거기다 권사님의 십일조 생활을 알게된 장로님은 호통을 치며, 권사님을 (본인 어휘로) ‘박살’내셨습니다. 그후 지인을 통해 우연히 소개받은 고(故) 하용 조 목사님 교회로 1989년 출석하게 된 게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합당한 남자’를 기도한 사모님에 대해 ‘그닥 합당치 못했던’ 장로님은 대신 자신에게 ‘합당한 아내’였다고 자랑했습니다. “아내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정말 좋아요. 가는 곳 마다 인기야. 걸로 폰수를 얼마나 잘 떠는지 몰라요. 후훗 사실, 그런 아내 덕분에 저도 사람 됐어요. 독선과 논리로 남보다 앞서가려들고, 못쫓아오는 사람들 갑갑해 하고 무시하는 성격이었는데, 아내가 균형을 잡아주거든요.”

소위 호불호가 꽤 강해 보이시는 장로님도 철저히 자신을 내려놓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 “선교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조정민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구조선이라고. 현대 많은 사람들이 유람선으로 알고 있다고. 어떤 음식을 접대할까, 어떤 콘서트를 할까 이렇게들 노력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구조선이야 하니깐요. 치유사역도 하고 여러가지 사역을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사람을 구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조사역 중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말씀 사역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훑어 보면 교회가 유람선 처럼 자기만 살필 때 무너졌습니다. 구조선 답게 에너지를 쓰면, 그런 사역을 하고, 말씀 위주로 가면 그 교회는 생명이 겁니다. 우리가 교회 예산이 많고 겉보기에 번성한다고 해도 깨어있지 못하면 (어느 교회든) 잠깐입니다. 진정으로 내면에서 부터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를 찾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지금 아무리 화려해도 소용없습니다. 언제나 촛불은 옮겨집니다. 특히 돈으로 하는 선교가 최악입니다. 예배당 지어주고 1년 지났더니, 니네 예배당 샌다고 연락온답니다. **어떤 면에서 BEE는, 돈으로 (선교) 하지 않기 때문에, (섬기는 사람들도) 자비량으로 하기 때문에 더 강력하다고 봅니다. 자기 헌신으로 섬기도록 이끌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BEE로 돌아오시게 된 이유를 여쭙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사는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저 시험 잘보는 거 밖에 없었었는데, 교회 섬기면서 해석해 보니, 말씀의 은사, 지식의 은사라고 보게 되었습니다. (BEE 세미나) 인도 하다보면, 평소에 알지 못하던 걸 인도하면서 깨닫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싶습니다. 교회엔 어쩔 수 없이 가라지도 많고 미성숙한 알곡들도 많게 마련입니다. 교회 모든 것에 인프라가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안다고 했을 때, 흔히 그 기준이 되는 하나의 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을 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심오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너는 내 안에 있어라. 내가 너를 사랑하듯 너도 나를 사랑하라...” 우리 믿음의 최종 고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속에서 부터 나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가수) 정수라 노래가 맞다고 봅니다. ‘난 네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누구보다 깐깐한 그의 고백이기에, 그 어떤 것 보다 더 힘있게 진심이 전달됐습니다. (글: 최승호, 사진: 조정문, 편집: 최지영)

### 정대서 장로님은...

1952년생. MIT Sloan School 졸업(MBA). 온누리교회 2000선교본부 융합 선교팀장. 아내 이혜정 권사님과의 사이에 시집 간 두 딸이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유치원 다니는 손주들 재롱도 쏠쏠합니다. 생명의 삶 플러스로 매일 큐티 중. 아내와 4복음서를 매일 한 장씩 공부하는 시간이 참 좋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인생을 해석할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해석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교만이 머리 끝까지 치솟아, 행여 괴물이 되지 않기를 늘 기도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처럼 사는 게 소망입니다.



## BEE 소식

이번 여름 베트남 아웃리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님 주신 마음이 있으신 많은 분들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문의와 등록은 본부로 하시면 됩니다.

V.N 일정별(4박5일) 사역 내용

날짜	사역 내용	숙소	비고		
7.27(수) 1일차	오후	하이퐁 찐 장로님댁 (1박)	미니버스 1대 (16 인승)		
				- 타이빙 카간교회 방문 - BEE 학생 교제 및 식사(교회준비)	
	저녁			- 식사후 도착예배 후 하이퐁이동	
7.28(목) 2일차	오전	하이퐁 찐 장로님댁 (1박)	미니버스 1대 (16 인승)		
					- 도슨이동 아침 식사 - 도슨교회 방문 및 기도 - 하룻베이 이동
					- 하룻베이 선상 식사 : 하룻관광 (11:30 - 15:00) - 하룻관광 (11:30 - 15:00) - 끼엔안 교회 방문(성도교제 및 기도) - 하이퐁 교회 저녁식사교제( BEE학생 함께) - 저녁 식사후 썸나 참관후 찐 장로님댁(저녁 모임)
	오후				
7.29(금) 3일차	오전	타이응엔 호텔 (1박)	미니버스 1대 (16 인승)		
					- 아침 식사후 - 타이응엔 출발(6시간 소요) - 타이응엔 교회도착(BEE 학생들과 교제 및 식사) - 타이응엔 호텔숙박
	오후				
					- 타이응엔 교회도착(BEE 학생들과 교제 및 식사) - 타이응엔 호텔숙박- 아침식사후 박슨 출발
7.30(토) 4일차	오전	하노이 --호텔 (1박)	미니버스 1대 (16 인승)		
					- 아침 식사후 박슨 이동 - BEE 세미나 참관 - BEE 학생들과 교제 및 식사
	오후				
					- 중식후(교회준비) 하노이 이동 - 쏫트엉 교회 방문 (성도간 교제 ) - 저녁 호텔로 이동 및 저녁식사
7.31(주일) 5일차	오전		미니버스 1대 (35 인승)		
					- 아침식사후 체크아웃 - 교회이동(하노이 교회:현지) 09:00-11:00 - 공항이동 - 한국출발